

전주 구도심 역사문화 복원 탄력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발전 기여 우수 향토기업 방문

‘전라감영 완전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회’ 첫 회의 열어

전라감영의 서편부지를 포함한 완전 복원과 성과 일부가 발견된 전주부성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주 구도심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2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역사·고건축·도시계획·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라감영 완전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재창조위원회는 고건축, 고고학, 도시계획, 도시재생, 역사, 콘텐츠 전문가들을 비롯해 시의원, 행정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고건축 분야에는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와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가, 고고학 분야에는 박정근 군산대학교 교수와 소재운 국립원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이 참여한다. 도시계획 분야의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와 도시재생 분야의 소영식 전주도시현장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이재은 전주대학교 교수와 이정욱 전주대학교 교수, 김은정 전북일보

이사,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 국철인 전라북도 문화유산과장,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등도 함께하게 됐다.

재창조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분기별 전체회의와 월별 실무회의를 통해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 수행을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진정성을 갖춘 복원 방향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선화당을 비롯한 6개 건물 등 동편부지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함께 서편부지 및 남편부지의 복원 방향과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한옥마을~종남문~전라감영~종래지관을 연결하는 구도심 핵심공간으로 육성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부성에 대해서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복서편(목토주차장)과 북동편(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성곽의 기초부분이 확인된 만큼 부지 매입 작업을 통해 성곽 및 성문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재창조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가 복원사업을 시행해 구도심 일원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호남권 대표 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전라북도의 역사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통치기관이었던 전라감영은 총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돼 복원 1단계로 선화당과, 내아, 관공각 등 동편 복원이 완료됐다. 또 전주부성의 경우 지난 1월 완산구 경원동3가 28-5번지 일원에서 북동편 성벽의 기초시설이 발견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 완전복원과 전주부성 복원은 전주의 천년을 잇는 또 다른 천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건물 복원이 아닌 전주의 정신과 역사를 복원하여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천일제지 방문 애로사항 청취·근로자 격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 향토기업을 찾아 경영진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승수 시장은 팔복동 제1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천일제지(주) 생산 공장을 방문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시장은 시민 2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천일제지(주) 경영진에 감사를 표한 후,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 향토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우수 지역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제품의 온라인 홍보 체계를 다변화하고, 보조



금 지원 시 보조사업자 지역제품 사용을 권고하는 등 지역제품 구매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비대면 방식의 기업 마케팅 및 해외수출 지원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팔복동 산단 내에 위치한 전주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날 방문한 천일제지(주)의 경우에도 지난

7월 열악한 제지제조 전문회사의 특성상 노후된 설비의 교체와 자동화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전문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구인난 등의 고충을 토로했으며, 시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심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는 만큼 지역기업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청취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 지역기업들이 작지만 세계에서 통하는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중견기업인 천일제지(주)는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생산하는 제지제조 전문회사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가치를 재창출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 최초 고품량 원지 생산기업’이자 ‘세계 유일의 지관원지 전문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창구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기로 한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시청(현대해상 5층)과 완산구청 8층 강당, 덕진구청 1층 로비 등 3곳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

혔다.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o)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

며, 지급 신청 뒤 2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대상 확인이 안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뒤 현장접수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담창구(237-2114)로 상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장관상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 ‘우주로 1216’을 만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지역서점·작은도서관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며 상생도서관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에서 ‘2021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표창 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표창은

도서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된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초대 회장 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중국 소주시와의 국제 학술토론회 등 국내외 도서관 간 활발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등 지역서점을 비롯한 작은도서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된 전

국 최초 트윈세대 공간인 ‘우주로 1216’의 도서관 공간 조성에서부터 콘텐츠 개발 과정 및 방법,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해왔던 공로를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3년 연속 전국도서관대회 포럼에 참여, ‘우주로 1216’ 운영 사례를 공유해왔다. ‘우주로 1216’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효천지구~삼천동 잇는 효천교 개통

전주시·LH 전북본부, 개통식 가져... 교통정체 해소·정주여건 개선 기대

전주시 효천지구와 삼천동 공동주택 밀집구역·먹자골목을 오갈 수 있는 효천교가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도시인 효천지구 공동주택 입주 이후 급증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LH 전북본부는 26일 효천교 상부에서 김승수 전주시시장과 정운천 국회의원,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천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효천교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증가된 교통량 수요에 대처하고 삼천동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총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돼 준공됐다. 당초 교량 건설공사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2016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추가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이 착수됐다.

효천교는 길이 126m, 폭 36.5m~43m에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됐다. 교량 상부 양쪽에는 폭 9.5m의 광장형 보도와 폭 5.5m의 보행로가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교량 상부 보행로에는 삼천의



김승수 전주시장이 26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들, 관계자들과 함께 효천교 개통식에 참석한 후 다리 위를 걷고 있다.

자연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숲길이 조성됐으며,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따죽지를 만들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삼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시는 효천교 개통 후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한 달 내 조치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효천교 개통으로 효천지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거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교량 상부에 삼천천의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고 도시 숲을 만드는 시도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